
Welcome to Zola Hell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대비
사회탐구 영역

졸라시발(Zola Cival)

생활과 윤리
실전 모의고사
<오르비>

zolazolazolacivalzolazolazolacivalzolazolazola

바나나 제거!

zolazolazolacivalzolazolazolacivalzolazolazola

‘22’년 특강에서 사용된 문제 중 일부입니다.

졸라시발(Zola Cival)의 정신

어떤 주제는 매년 나옵니다.
어떤 주제는 2~3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어떤 주제는 5~10년에 한 번 나옵니다.
어떤 주제는 생운 역사상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러나

어떤 주제가든 어렵게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올해 수능의 킬러 문제이면 어찌시겠습니까?

이 모의고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킬러 난이도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주제도 있고 그렇지 않은 주제도 있지만 모두 킬러 난이도입니다.

오로지 킬러이기 위해 만들어진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엽은 없습니다.

철저히 교과서+기출+ebs에 한정되어 나온 핵심들일 뿐입니다.

[졸시모 반응]

* 오르비 전자책은 현강용과는 문제'가' 다릅니다. 하지만 출제 방식과 원칙은 동일합니다.

생운 과목에서도 당연히 감사한 게 많아요! 수업도 정말 최고였고, 쌤 수업에는 어떤 인강에서도 매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특히 졸시모는 사실 모고 나름 이것저것 많이 풀었고 생운에 진심이였다고 생각하는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최고였어요! 선지 하나하나와 해설 하나하나에서 쌤의 정성과 실력이 느껴졌어요. 실제 평가원 모고랑 수능에도 도움 정말 많이 되었구요. 제 주변에 생운 하는 삼수생 친구랑 재수생 후배들이나 만나는데로 계속 만점 맞고 싶으면 막판 모고는 쌤 거 필수라고 말하고 다녀요 ㅎㅎ

전자책 두리두리 보고있는데, 힉한 이름의 모의고사가 있길래 사서 풀어봤습니다 ... 수능형1회 풀어봤는데 난도나 포인트면에서 ㅅㅅㅅㅅ였음 ... 1~5번 푸는데 기출에서 봤던 내용들이 진짜 이쁘고 뷰티하고 인테그리티하고 스테이빌리티하게 변형돼있길래 "카- 사쓰가 이름값하는 정통이네-" 하고 푸는데 9번썸인가에서 독배기에 점점 금이 가기 시작하더니 ... 해설지봤더니(굉장히 상세함) ... 제가 틀리거나 헛갈린 부분이 전부 교과서나 기출기반임 얼ㅋ ... 추천드려요

단언컨대 생운계에 존재하는 초고난도 모의고사입니다. ... 그렇다고 난해한 선지나 극지엽선지가 있는건 아닌데 답지를 보면 생운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겁니다. 생운 본인이 좀 하신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 이 모의를 풀고 작성하시길 바라구요..

갓갓 Zola 덕분에 생운 만점 받았습니다!!!!!!!!!!!!!!!!!!!!!! ... TTTTTTTTTTT T TTTTTTT 진짜 너무 감사해요 EOO(특정 쌤을 지칭하는 용어라 생략했습니다)의 밑도 끝도 없는 어려운 파이널보다 졸라 시발이 zola 도움되었습니다 TTTTTTTTTTTTTTTTTTTTTTTT 너무 감사해요.



12 셉렙파이브 · 822063 · 11/02 00:29 · MS 2018

쌤 진짜 졸시모 수능형 1회 풀었는데... 감히 현존하는 생운 모고 중 1등이라고 생각해요... 그 어느 모고보다 해설이 자세함... 실모 주구장창 쟁여냈는데 졸시 3회독하고 수능보러 갈까봐요 ㅎㅎ^_^

좋아요 0 · 답글 달기 · 신고

zola cival 어려운데 zola cival 도움 돼요..ㅠㅠ진짜 1번부터 후들겨 맞을 수 있지만 수능 문제가 수월하게 풀릴 거예용 매도 먼저 맞는 게 낫죠(?) 이제 수능 얼마 안 남았으니까 최종점검하시기 좋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졸시모8문제 풀고 깊은 감명을 받은 학생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풀어보고싶은데 구할 방법은 없나요?

오르비클래스 zola가 만든 졸시모 추천함 (-수겅)

작년에 졸라쌤 강의 들었던 학생입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한테 추천해주고 싶은데

혹시 올해도 졸시모 출시 예정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언제쯤 나오는지 알려주시면 감 사하겠습니다!!

Hell 교시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성명 수험번호 1 8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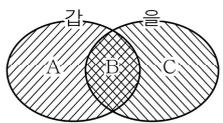
1. (가), (나), (다) 윤리학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윤리학	(예)
(가) 윤리학	‘인간 배아 세포를 이용한 실험이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가?’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 생명 공학 전문가 집단의 70%는 ‘그렇다’라고 답했다.
(나) 윤리학	인간 배아 세포를 이용한 실험은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기 때문에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다) 윤리학	인간 배아 세포를 이용한 실험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인간’의 의미는 무엇인가?

< 보 기 >
 ㄱ. (가)는 도덕 판단을 내릴 때 필요한 사실 자료들을 분석한다.
 ㄴ. (나)는 도덕 현상에 대한 가치 판단의 정당성을 탐구한다.
 ㄷ. (다)는 사실 판단에서 도덕 판단이 연역 가능한지를 탐구한다.
 ㄹ. (가), (나)는 윤리적 쟁점에 대한 구체적 해결을 제시하려고 한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2. (가)의 갑, 을 사상가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 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p>갑: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되고 공정한 기회 균등의 조건 아래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직책과 직위가 결부되게끔 편성되어야 한다.</p> <p>을: 어떤 준칙이 일반 법칙이 되기를 바란다면 이상적 담화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준칙이 보편화 가능한지 논의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제시해야 한다.</p>
(나)	 <p><범례> 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p>

< 보 기 >
 ㄱ. A: 가상적 절차를 통해 모두가 찬성하는 보편적 원칙에 합의한다.
 ㄴ. B: 합의 당사자들은 합의한 결과가 자신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한다.
 ㄷ. C: 합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상황에서 합의한다.
 ㄹ. C: 이상적 담화의 참여자가 되기 위한 자격은 존재하지 않는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3. 다음은 서양 근대 사상가와의 가상 대담이다.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회자: 선생님은 의무론으로 유명하신데 간단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상가: 저의 의무론에 따르면 의무에 맞는 행위와 의무이기 때문에 한 행위를 구분합니다. 칭찬받기 위해 정직한 것은 의무에 맞는 행위이긴 하지만 의무이기 때문에 한 행위는 아니므로 도덕적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 그렇군요. 그런데 샘은 20년 10월 교육청 15번 문제가 오류라고 주장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상가: 저는 인간의 의무를 직접적 의무와 간접적 의무로 구분하였습니다. 해당 문제가 오류인 이유는 간접적 의무는 <input type="text"/> ㉠

- ① 상대적 가치밖에 지니지 않는 사물과 관련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② 이성이 없는 존재를 의무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③ 자율적 행위 능력이 없는 존재도 의무의 주체로 보기 때문입니다.
 ④ 자연과 관련한 의무는 아니지만 인간에 대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⑤ 이성이 없는 존재의 어떠한 가치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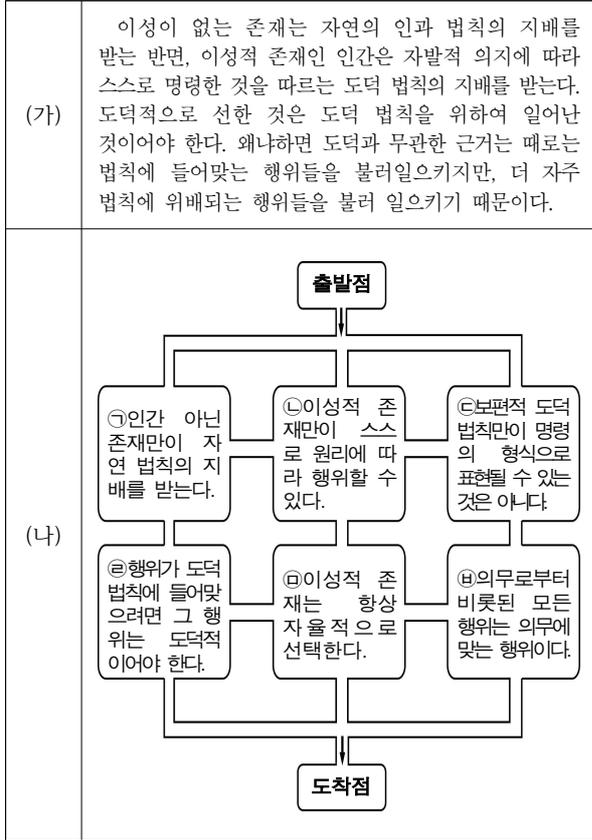
4. (가), (나)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평화와 번영은 자연스러운 상태가 아니다. 평화와 번영에는 의도적으로 고안된 기제가 요구된다. 국제 관계에서 이 기제는 국제 무정부 상태를 규제하는 국제기구이다. 이 기구를 통해 국제 평화가 보장될 수 있다.
(나) 국제 정치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이든 간에 권력이 항상 일차적 목표다. 우리가 권력이라고 말할 때는 다른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지배하는 힘을 가리킨다. 권력 투쟁은 모든 사회적 관계에서 그리고 모든 수준의 사회기구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 보 기 >
 ㄱ. (가)는 평화 달성을 위해 집단 안보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고 본다.
 ㄴ. (가)는 (나)와 달리 인간의 본성이 국가 간 관계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본다.
 ㄷ. (나)는 권력 투쟁은 현상은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 모두에서 나타난다고 본다.
 ㄹ. (나)는 (가)와 달리 국제 관계에서 국가를 유일한 단일 행위자로 간주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5.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을 (나) 그림에서 찾아 옳은 지점만을 모두 거쳐 간 것은?



- ① 출발점 → ㉠ → ㉤ → 도착점
- ② 출발점 → ㉡ → ㉥ → ㉦ → 도착점
- ③ 출발점 → ㉢ → ㉡ → ㉥ → 도착점
- ④ 출발점 → ㉡ → ㉥ → ㉦ → ㉤ → 도착점
- ⑤ 출발점 → ㉠ → ㉡ → ㉥ → ㉦ → ㉤ → 도착점

6.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서술형 평가

◎ 문제: 다음 사상가들의 입장을 비교 설명해봐!

갑: 한 나라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그 나라의 정치문화이지, 그 나라의 자원 수준이 아니다. 따라서 해외 원조에서 자원배분 정책은 논할 필요는 없다.

을: 절대 빈곤국에 사는 사람들의 수를 줄이는 것은 분명 상대적인 빈곤을 줄이는 것보다 더 효용성이 크고 절박한 일이다.

◎ 학생 답안

갑 사상가는 ㉠원조 대상국 정부의 인권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자국의 기아가 방치된다고 보았다. 을 사상가는 ㉡정부를 압박하여 해외 원조가 효과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을과 달리 갑은 ㉢원조받는 나라들의 정부가 교육을 개선하도록 고무하는 것이 원조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갑과 을 모두 ㉣원조 대상국의 정치 상황이 원조 대상을 결정짓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 ⑤ ㉡, ㉢, ㉣

-----공식 문제는 여기까지!-----

[Zola Bonus] 맞으면 0점, 틀리면 -50점!

7. (가)의 입장에서 (나)의 입장에 대해 제기할 반론으로 적절한 것은?

(가)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악법은 정의에 위배되므로 이에 저항해야 한다.
(나)	공동체의 질서에 대한 정의로움에 대한 판단은 사람마다 다르다. 따라서 지극히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정의의 가치를 중심으로 법의 문제를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약 악법이 있을 때에는 법 외부에 존재하는 상대적 가치나 신념에 의존하지 말고 법의 체계 내에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

- ① 법의 체계 내에서도 악법이 존재할 수 있음을 모르고 있다.
- ② 악법을 올바르게 고쳐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모르고 있다.
- ③ 시민 불복종을 통해 악법을 무효화할 수 있음을 모르고 있다.
- ④ 정당성을 상실한 법에 대한 불복종은 정의에 근거해야 함을 모르고 있다.
- ⑤ 법적 문제를 해결할 때 정의의 영역과 법의 영역이 구분되어야 함을 모르고 있다.

Zola Guide

수능형 빠른 답 확인

1	2	3	4	5	6	7	8	9	10
④	①	①	④	②	④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 지금 점수가 수능의 점수가 아님!
2. 문제와 해설을 같이 보면서 개념 공부한다는 식으로 접근해도 좋을 것입니다.
3. 해설에서 '바나나 선지' 라는 것은 항상 참 또는 거짓이거나 혹은 충분히 제시문이나 핵심 지식으로 연상(추론)가능한 선지를 의미합니다. 즉, 여러분이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는 선지를 의미합니다.
4. 출처 보는 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보는 법(예)	
1. 평가원	
(1) 16-9-3 = 16학년도(15년 시행)-9월 평가원-3번	
(2) 21-수능-5-③ = 21학년도(20년 시행)-수능(11월)-5번-선지 ③	
2. 교육청	
(1) 16-3교-5번 = 16년 시행-3월 교육청-5번	
(2) 17-10교-10번 = 17년 시행-10월 교육청-10번	
3. ebs 수특/수완	
(1) 22 ebs 수특 73쪽 5번 = 22년 발행(23학년도 수능 대비) ebs 수능특강 73쪽 5번	
(2) 19 ebs 수완 11쪽 3번 = 19년 발행(20학년도 수능 대비) ebs 수능완성 11쪽 3번	

5. 해설의 어법(?)은 반말과 높임말, 줄임말 등이 혼용됩니다. 해설자가 마음 편하게 해설해야 해설이 잘 될 것 같아서 Zola가 편한 대로 할게요.
6. 수능형 목표 1컷 - 수능형 문제는 1컷 44점 이하(2~3개 이상은 틀린다!)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현강(종로) 수강생들의 예비 테스트에 참여한 학생들의 70% 정도가 1컷 40점±2점으로 예상함.)

1 답 ④

☛ Zola Guide 바나나에 대한 동정심에서 출제된 문제임. 수능 정도의 난이도에 불과함.

(가) 기술 윤리학, (나) 규범 윤리학, (다) 메타 윤리학임. 여기까지의 내용에서 설명이 필요하다면 님의 개념 공부에 문제가 있음. 아래 교과서 자료를 바탕으로 출제된 문제임.

[교과서 자료(천재)] 윤리 문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탐구하기

기술 윤리학은 사회의 도덕적 질서 내에서 사실적 의미를 탐구하며, 규범 윤리학은 구체적인 도덕 판단의 타당성과 그 근거에 대해 묻는다. 메타 윤리학은 도덕적 언어의 의미나 도덕적 진술의 논리적 구조 등을 분석한다. 도덕 판단이 필요한 하나의 윤리 문제에 대하여 이 방법들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간 배아 세포를 이용한 실험에 대한 도덕 판단을 내릴 때 관련된 사실 자료들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허용 여부에 대한 가치 판단을 내릴 수 있으며, 이러한 분석 및 사고 과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분석할 수 있다.

기술 윤리학적 접근	규범 윤리학적 접근	메타 윤리학적 접근
(예) '인간 배아 세포를 이용한 실험이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가?'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 생명 공학 전문가 집단의 70%는 '그렇다'라고 답했다.	(예) 인간 배아 세포를 이용 실험은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기 때문에 허용해서는 안 된다.	(예) 인간 배아 세포를 이용한 실험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인간'의 의미는 무엇인가?

ㄱ. (가)는 도덕 판단을 내릴 때 필요한 사실 자료들을 분석한다.

→ 참. 기술 윤리학은 도덕 현상에 대한 사실들을 탐구함. 그리고 도덕 판단을 내리는 데에는 사실적 근거들이 활용됨.

ㄴ. (나)는 도덕 현상에 대한 가치 판단의 정당성을 탐구한다.

→ 참. 도덕 현상을 연구하는 것은 기술 윤리학임. 그러나 도덕 현상에 대한 도덕(가치) 판단은 규범 윤리학이 하는 것임.

ㄷ. (다)는 사실 판단에서 도덕 판단이 연역 가능한지를 탐구한다.

→ 참. 메타 윤리학은 논리(논증, 추론)의 규칙을 탐구하는 것임. 추론에는 연역이 포함되어 있음. 즉 연역 추론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은 메타 윤리학임. 참고로 이 선지는 아래 기출 선지를 활용한 것임. 아래 기출과 비교해 보길 바람.

[17-9-1-③] 사실 명제로부터 당위 명제가 **연역 가능한지 탐구해야 한다.**

ㄷ. (다)는 사실 판단에서 도덕 판단이 **연역 가능한지를 탐구한다.**

ㄹ. (가), (나)는 윤리적 쟁점에 대한 구체적 해결을 제시하려고 한다.

→ 거짓. 윤리적 쟁점에 대한 구체적 해결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은 실천(규범) 윤리학임. 즉 (나)에만 해당이 됨.

[출시 생활과 윤리] Zola 영역

5

2 답 ①

☛ Zola Guide (1) [14-수능-5](윤리와 사상)에서 영감(?)을 얻어서 만든 문제임. 해당 윤사 문제는 생원 교육과정에도 해당하므로 첨부하는 문제도 꼭 풀어볼 것. 첨부되어 있음. (2) 혹시 을을 칸트로 해서 풀면 답이 안 나와야 함. 만약 을을 칸트로 생각해서 풀었는데 맞추었다면 칸트 공부 다시 하셈. 님들은 칸트의 도덕 법칙에 대한 엄청난 오개념을 가지고 있음.

갑은 롤스, 을은 하버마스이다.

갑이 롤스인 것은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음.

을의 경우 칸트로 착각할 수도 있으나 칸트는 준칙의 보편화 가능성을 실천 이상으로 검토하지 타인이랑 논의하지 않음. 그래서 을을 칸트로 풀어서 맞추었다면 님들은 칸트에 대해 엄청난 오개념을 갖고 있는 것임. 그리고 '이상적 담화 상황'을 통해서도 칸트가 아님을 알 수 있음.

ㄱ. A: 가상적 절차를 통해 모두가 찬성하는 보편적 원칙에 합의한다.

→ 참. '가상적 절차' 때문에 참이 됨. 롤스와 하버마스의 공통점이 '절차'를 강조하고, 그 절차에서 '모두'의 '합의'를 통해 '보편적' 원칙이 도출됨. 그런데 롤스는 가상이지만 하버마스는 현실임. 참고로 롤스는 현실에서 '모두' 합의해야 한다고 하지는 않음.

ㄴ. B: 합의 당사자들은 합의한 결과가 자신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한다.

→ 참. 님들이 인간이라면 합의할 때 내가 이 합의한 원칙을 지켜야 하는데 당연히 그 영향을 생각하지 않겠니????? 뭘 그리 고민하남?????

구체적인 설명은 아래 참고.

→ 일단 하버마스와 롤스는 합의가 '모두' 합의임. 이것은 선지 ㄱ에서 확인했음.

→ 다음으로 두 사상이 모두 '절차', '과정'을 강조함. 그런데 이것은 이 선지 푸는데 필요없는 지식임. 다시 말해 님들이 배운 지식은 '절차가 공정하면 결과가 공정하다'는 것임. 절차 과정에서 결과를 고려하지 않는다가 아님.

→ 하버마스 내용은 아래 자료로 확인됨.

● [하버마스의 담론 윤리] 22 ebs 수완 99쪽

모든 타당한 규범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모든 개인의 이해를 만족하기 위해서 그 규범을 일반적으로 따를 때 발생할 수 있는 결과와 부작용을 모든 당사자가 수락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대안적 조절 기능성의 효과보다 결과와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 ... (중략) ... 어떤 준칙이 일반 법칙이 되기를 바란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 준칙의 타당성을 규정적으로 명령하거나 강제하지 말아야 한다. 대신 나의 준칙이 보편화 가능한지 논의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제시해야 한다. 개인이 모순 없이 일반 법칙으로 원할 수 있는 것부터 모든 사람이 일치하여 보편적 규범으로 승인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무게 중심을 이행한다.

- 하버마스, '도덕의식과 소통적 행위' -

→ 롤스는 아래 자료로 확인됨.

[롤스, '정의론'] 합리적 인간이라면 자기 자신의 기본 권리와 이해관계에 미칠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전체 이득의 산술적인 총량을 극대화하는 이유만으로 어떤 기본 구조를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ㄷ. C: 합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평등한 상황에서 합의한다.

→ 거짓. 두 사상이 모두 긍정할 진술문임. 즉 B에 해당함.

→ 생원이라는 과목에서 다루는 '합의'의 특징을 생각해 본다면 바나나 선지라고 볼 수 있음.

(1) 일단 내가 합의해야 함. 그러면 합리적인 사고해야 할 듯!

(2) 합의한 것은 나에게도 영향을 줌. 그러면 부자유롭거나 불평등한 상황에서 합의하고 싶은 인간 있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야매식으로 풀자면 공정하게 합의를 하려면 자유롭고 평등해야 할 것 같은데 정도로 풀어도 됨. 생각이 많으면 틀림!!!

→ 정식으로 풀이하면 다음과 같음. 우선 하버마스부터 먼저 설명하면 이상적인 담화의 조건이 누구나(합리적 의사소통 능력이 있다면), 개방적으로, 자유롭게, 평등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서로 비판(평가)받으면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임.

→ 아래 문제에서 하버마스 확인 가능함.

[참고] 14-수능-5, 윤리와 사상

5. (가)의 갑, 을 사상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에 들어갈 공통된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p>갑: 인간은 평화로운 자연상태에서 분쟁이나 갈등이 발생할 경우에 자신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수립에 동의한다.</p> <p>을: 인간은 공정성을 보장하는 의사소통의 형식인 이상적 담화 상황에서 모든 당사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도덕적 규칙을 도출할 수 있다.</p>
(나)	<p>갑: ㉠. 그러면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p> <p>을: ㉡. 그러면 도덕 문제를 이성적으로 해결하는 보편적 규범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p>

① 정부에 대한 자발적인 복종과 권리의 포기에 합의하라
 ② 개인들 간의 가상적 계약을 통해 정부의 수립에 합의하라
 ③ 다수결의 원리에 따른 공적인 결정에 이견 없이 합의하라
 ④ 공론의 형성 과정을 방해하는 대화 참여자들의 배제에 합의하라
 ⑤ 합리적 이성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평등한 상황에서 합의하라

[출시 생활과 윤리] Zola 영역

7

3 답 ①

☛ Zola Guide 21 수능에 최초로 '선지'에 칸트의 '~와 관련한 의무'와 '~에 대한 의무'가 출제됨. 그 동안은 외우라고 강요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외워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출제하였음. 마침 교육청 중에 오류가 있어서 그걸 소재로 삼았음. 교육청 문제가 오류인지 아닌지는 남들이 아래 첨부되는 Zola의 해설과 칸트 원전(기출 제시문들)을 참고하여 판단하길 바람.

사상가들 중에 '표현법'에 뇌피셜이 강한 사상들이 몇 있다. 이들 사상가들은 그들의 표현법 자체를 외워야 한다. 칸트도 그 중의 하나이다. 문제는 칸트 이 쓰별논은 표현법이 명사에 있지 않고 조사(?)에 있어서 까다롭다는 것이다. 남들은 의무'에 맞는'과 의무'이기 때문에(에서 비롯된)'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와 관련한'이라는 것과 '~에 대한'이라는 표현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참고로 간단한 팁을 드리자면 '~에 대한'은 '~을 위한'으로 바꾸면 이해하기 편하다.

Zola Tip. ~에 대한(칸트) = ~을 위한(우리)

칸트의 직접적 의무(~에 대한)와 간접적 의무(~와 관련한)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종류	대상	표현	누구를 위한	표현
직접적 의무	인간	인간에 대한	인간을 위한	인간에 대한
간접적 의무	동식물	동식물과 관련한	인간을 위한	인간에 대한

① 상대적 가치밖에 지니지 않는 사물과 관련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 참. 간접적 의무는 인간 아닌 존재와 관련한 의무이다. 그런데 인간 아닌 존재에는 동물이나 식물, 무생물이 들어가는데 동물이나 식물은 '사물'이지 않지 않느냐라는 것이 우리의 뇌피셜이다. 그리고 우리의 뇌피셜을 칸트는 무참히 짓밟는다. 쓰별!! 아래 제시문 참고하면 된다.

[칸트, '윤리형이상학'] 인간은 일반적으로 모든 이성적 존재는 목적 자체로서 존재하고 이러저러한 의지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또한 다른 이성적 존재'를 **향한'** 모든 행위에 있어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만일 어떤 존재가 이성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수단으로서의 상대적 가치밖에 지니지 않기 때문에 사물이라고 불린다.

② 이성이 없는 존재를 의무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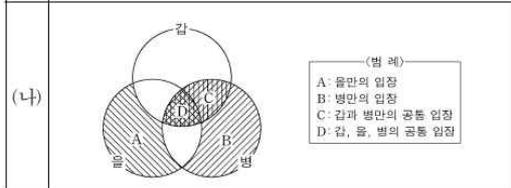
→ 거짓. 이성이 없는 존재는 간접적 의무의 대상이 됨.

수험생의 환경에 빠지기 쉬운 선지이다. 직접적인 것도 '의무'이고 간접적인 것도 '의무'이다. 따라서 이성이 없는 존재는 간접적 의무의 대상이 된다.

[21-수능-15]

15.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갑: 쾌고를 느낄 수 있는 능력은 어떤 존재가 이익 관심을 갖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 만약 한 존재가 쾌고를 겪을 수 없다면, 고려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을: 자연의 아름다움을 무자비하게 파괴하려는 성향은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를 거스른다. 왜냐하면 그것은 도덕성에 기여하는 감정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병: 개인은 상호 의존적인 대지 공동체의 구성원이다. 개인의 본능은 공동체 내에서 경쟁할 것을 추구하지만 그의 윤리는 협동도 하라고 촉구한다.



<보 기>
 가. A: 인간의 윤리는 동물을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할 근거가 아니다.
 나. B: 인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자연과 관련해서도 인간의 의무가 발생한다.
 다. C: 직접적인 도덕적 의무의 대상은 인간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라. D: 도덕적 지위를 지닌 존재의 범위를 모든 생명체로 설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다, 라
 ④ 가, 나, 라 ⑤ 나, 다, 라

답 ③

③ 자율적 행위 능력이 없는 존재도 의무의 주체로 보기 때문입니다.

→ 거짓. 바나나 선지. 자율은 이성으로 보면 됨. 자율적 행위 능력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음. 그리고 인간만의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 이진 fact(참, 진실)일 뿐이지 특정 사상가의 입장이 아님. 모든 사상가가 부정할 선지임.
 → 바나나 제거 특강(Zola 생운 0)에서 다루었음. 그만큼 지금 이 시점에 이런 걸 고민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의미임. 바나나 제거 특강 참고할 것. 무료로 완전 오픈되어 있음.

④ 자연과 관련한 의무는 아니지만 인간에 대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 거짓. 간접적 의무는 자연과 관련한 의무임.
 → 아래 글 참고.

● [칸트]

자연 중에 생명이 없음에도 아름다운 것에 대해 파괴를 일삼는 것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반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자체만으로는 도덕적인 것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도덕성을 매우 촉진하고, 적어도 그를 위해, 곧 무엇인가(예컨대 광물계의 아름다운 결정체들, 식물계의 형언할 수 없이 아름다운 것)를 유용성에 대한 고려 없이도 사랑하도록 준비시키는 감정의 정조인, 인간 안의 감정을 약화시키거나 절멸시키기 때문이다.

생명을 지니고 있지만 이성적 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피조물과 관련하여 볼 때, 동물들을 거칠고 잔인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며 인간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동물들의 고통에 대한 공감이 인간 안에서도 둔화되고, 그로써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도덕성에 매우 이로운 자연 소질이 약화되어 점차로 절멸될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동물을 죽여야 할 경우 가능한 빨리(고통이 없이) 죽여야 하며 동물에게 일을 시킬 경우 그 동물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을 억지로 하도록 강제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한 **동물들과 관련된 인간의 의무는 간접적인 의무에 속한다. 직접적인 의무는 항상 오직 인간 자신에 대한 우리의 의무이다.**

⑤ 이성이 없는 존재의 어떠한 가치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거짓. 선지 ②와 동일한 원리의 선지이다. 의무 중에는 직접적 의무와 간접적 의무가 있다. 마찬가지로 가치 중에는 목적적(절대적) 가치와 상대적(수단적) 가치가 있다. 결론적으로 이성이 없는 존재는 상대적(수단적, 도구적) 가치를 가짐.
 → 이 선지도 기출에서 활용이 되었다.

[22-6-10]

10.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인간은 통상 인간에 대한 의무 외에 다른 의무는 갖지 않는다. 늙은 말이 수행한 봉사에 대한 감사마저도 직접적으로 볼 때는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이다.</p> <p>을: 인간만이 아니라 일부 동물도 삶의 주체이다. 왜냐하면 그들도 다른 존재의 이익과는 독립적으로 개별적 복지를 갖는 것과 같은 특징을 지니기 때문이다.</p> <p>병: 인간은 생명 공동체의 한 구성원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의 활동으로만 설명되어 온 많은 역사적 사건들은 실제로는 인간과 대지의 생명적 상호 작용이었다.</p>
(나)	

- < 보 기 >
- ㄱ. A: 인간 이외의 존재에게는 어떠한 가치도 부여되지 않는다.
 - ㄴ. B: 인간은 동물 중(種)에 대한 직접적 의무를 실천해야 한다.
 - ㄷ. C: 인간은 살아 있는 모든 존재를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한다.
 - ㄹ. D: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도 권리를 지닌 존재일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답 ⑤

[출시 생활과 윤리] Zola 영역

9

[출제근거 모음]

(1) 원전

- 인간은 동물을 죽여야 할 경우 가능한 빨리(고통이 없이) 죽여야 하며 동물에게 일을 시킬 경우 그 동물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을 억지로 하도록 강제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한 동물들과 관련된 인간의 의무는 간접적인 의무에 속한다. 직접적인 의무는 항상 오직 인간 자신에 대한 우리의 의무이다.
- 순전한 이성에 의해 판단하면 인간은 통상 순전한 인간에 대한 의무 외에 다른 의무는 갖지 않는다.

(2) 기출 제시문 (‘의무’, ‘직접적 의무’, ‘간접적 의무’가 사용된 제시문)

- [22-9-15] 갑: 동물을 잔학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에 어긋난다. 왜냐하면 타인과의 관계에서 도덕성에 도움이 되는 자연적 소질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 [22-6-10] 갑: 인간은 통상 인간에 대한 의무 외에 다른 의무는 갖지 않는다. 늙은 말이 수행한 봉사에 대한 감사마저도 직접적으로 볼 때는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이다.
- [21-6-15] 병: 도덕적 의무를 질 수 있는 인간에 대한 의무 외에 다른 존재에 대한 의무는 없다. 물론 동물이 수행한 봉사에 대한 감사는 간접적으로 인간의 의무에 속한다.
- [20-6-6] 갑: 우리는 인간에 대해서만 직접적인 의무를 지니며, 다른 존재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의무를 지니지 않는다. 인간만이 실현 이성을 지닌 자율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 [19-수능-9] 갑: 자연 안에 생명이 없는 아름다운 대상들에 대한 파괴를 일삼는 것은 도덕성을 크게 촉진하는 감정을 약화시켜 자기 자신에 대한 인간의 의무와 대립한다.
- [19-9-12] 갑: 늙은 말이나 개와 같이 오랫동안 봉사한 동물들에게 감사의 정(情)을 표현하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언제나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일 따름이다.
- [16-수능-15] 갑: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는 동물의 고통에 대한 공감을 둔화시키고 도덕성에 매우 이로운 자연적 소질을 약화시킨다. 따라서 그러한 행위는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어긋난다.
- [15-9-7] 을: 이성이 없지만 생명이 있는 동물들을 잔학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어긋난다. 그리고 자연 중에 생명이 없지만 아름다운 것을 파괴하려는 성향도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어긋난다.
- [14-수능-11] 갑: 동물을 잔인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와 배치된다. 왜냐하면 이는 인간의 도덕성을 실현하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 [14-6-16] 갑: 인간은 자연을 고려해야 하는 간접적 의무를 갖는다.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는 인간의 동정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3) 기출 선지

- [19-6-9] ㄴ. D: 동물 학대가 인간의 의무에 위배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 칸트 000
- [15-수능-14] ㄷ. C: 인간은 인간 자신에 대해서만 직접적인 의무를 지닌다. → 칸트 000
- [15-9-7] ㉠ 을은 식물을 보존하는 것이 간접적인 의무로 성립 가능하다고 본다. → 칸트 000
- [14-수능-11] ㄱ. A: 동물 학대 금지는 간접적으로만 인간의 의무에 속한다. → 칸트 000
- [14-6-16] ㉠ 갑은 인간을 위해 생태계를 고려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 칸트 000

[출시 생활과 윤리] Zola 영역

문제분석 제시문은 모겐소의 주장이다. 모겐소는 인간이 정치적 동물이자 권력을 추구하는 본능을 가지고 태어나며, 국제 정치나 국내 정치 모두 권력을 위한 투쟁이라고 보았다.

정답찾기 가. 모겐소는 위대한 국가가 의지할 수 있는 행동과 판단 기준으로는 도덕적이건 지성적이건, 국가 이익 이상의 것이 있을 수 없다고 보았다.

나. 모겐소에 따르면 국제 정치는 독립된 주권 국가들을 이끄는 중심적인 권위체가 존재하지 않는 무정부 상태이며, 개별 국가보다 더 상위에 있는 권위체는 없다.

다. 모겐소는 국가 지도자라면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든 국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다.

오답피하기 라. 모겐소는 권력으로 정의된 이익 개념에 기초하고 있는 국제 정치에서, 모든 국가 간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도덕 원칙을 합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답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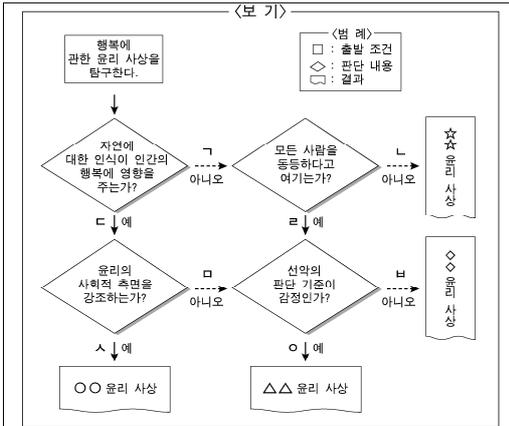
라. (나)는 (가)와 달리 국제 관계에서 국가를 유일한 단일 행위자로 간주한다.

→ 참. 현실주의와 이상주의를 비교할 때 자주 출제된 선지였다. 다만, 최근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 지식적으로 파고 들면 정확성 부분에서 지적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녀들은 현실주의가 이상주의보다는 국가 중심이고(이상주의도 국가를 중요하게 생각함), 이상주의는 현실주의보다 국가 외의 행위자에 '도' 관심이 많다는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다.

5 답 ②

문제 유형에 대한 Zola Guide 남들은 처음보는 유형이지만 윤사와 ebs 수완 생원(13년)에서 활용된 자료임. 수능 겨우 몇 년치 정도 풀면서 수능을 다 안다고 착각하지 마! 09-9평, 윤리 문제 중 일부임. 아래 참고할 것.



↑ 09-9평-2번에서 사용된 자료임. 참고로 이때 1컷이 전설의 29점임. 정답률 40% 이하 문제가 10문제였음. ㅋㅋ...학생들이 아니라 강사들이 울었음. 우리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면서...ㅏㅏ....

☛ Zola Guide (1) 칸트 바나나 저격용. (2) '만', '모두', '뿐', '항상' 등의 수식어(?)에 부들 부들 떠는 바나나를 저격용. (3) 제시문 드럽게 안 보는 바나나 저격용임. (4) 윤사 22-수능-16, 23-9-13 문제를 틀린 쌍윤리 바나나 저격용임.

제시문 사상가가 칸트라는 것을 굳이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음.

㉠인간 아닌 존재만이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 거짓. 칸트에 따르면 인간도 자연의 존재이므로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다만, 인간 아닌 존재는 자연 법칙의 지배만을 받는 반면 인간은 자연 법칙과 도덕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 기출 n회독의 효과가 있는 분들은 아래 제시문을 떠올리 수 있을 것이다.

기출 출처, 제시문	Zola 해설
[19-6-9]	
1. 자연 체계 내에서의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같이 대지의 산물로서 평범한 가치를 가진다.	1. 인간과 인간 아닌 존재와의 공통점: 대지(자연)의 산물임. 자연 법칙의 대상임.
2. 그러나 도덕적, 실천적 이성의 주체로서 인간은 자연 안에 존엄하며 절대적 가치를 지닌 존재이다.	2. 인간만의 특성: 이성적 존재. 목적 그 자체.

→ 쌍윤리가 아니더라도 아래 문제는 풀어두자! 칸트 고난도 선지는 다 모여 있는 문제이다.

● [윤사, 22-수능-16]

[윤사, 23-9-13]

16.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내 위의 별이 빛나는 하늘과 내 안의 도덕 법칙, 나는 이 둘을 마치 어둠 속에 감춰져 있는 것처럼 찾거나 추측하지 않는다. 나는 이 둘을 눈앞에서 보고 나의 존재 의식과 직접 연결시킨다. 도덕 법칙은 나의 인격성에서 출발하고, 참된 무한성을 갖는다. 그러나 지성에 의해서만 감지되는 세계, 즉 예지계 속에서 나를 나타낸다. 예지계와 나의 연결은 결코 우연적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필연적임을 나는 인식한다.

- ① 보편적 도덕 법칙만이 명령의 형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 ② 신과 인간 모두에게 도덕 법칙이 의무로 부과될 수 있다.
- ③ 의무로부터 비롯된 모든 행위는 의무에 맞는 행위에 속한다.
- ④ 개인의 주관적 행위 규칙은 보편적 도덕 법칙이 될 수 없다.
- ⑤ 인간은 자연법칙의 지배하에 있지 않으며 도덕 법칙에만 지배받는다.

13.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무릇 어떤 것이 도덕적으로 선한 것이라면, 그것이 도덕 법칙에 알맞은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것은 또한 도덕 법칙을 위하여 일어난 것이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지 알맞음은 매우 우연적이고 불안정한 것일 뿐이다. 왜냐하면 도덕과 무관한 근거는 때로는 법칙에 들어맞는 행위들을 불러일으키지만, 더 자주 법칙에 위배되는 행위들을 불러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다.

<보기>

- ㄱ. 이성적인 존재는 자연 법칙의 지배를 거부하고 도덕 법칙에만 스스로 복종해야 한다.
- ㄴ. 선의지에서 비롯되지 않은 도덕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 ㄷ. 행위가 도덕 법칙에 들어맞으려면 그 행위는 도덕적이어야만 한다.
- ㄹ. 보편화 가능한 준칙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없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답] 22-수능-16-③(메가 정답률 44%), 23-9-13-④(메가 정답률 47%)

→ 22-수능-16의 선지 ⑤ 오답률이 5%밖에 안 되는 반면에 23-9-13의 보기 ㄱ 오답률은 13%이다. 이 정도는 바나나들의 오차 범위 안에 있는

[총시 생활과 윤리] Zola 영역

건가???

㉠이성적 존재만이 스스로 원리에 따라 행위할 수 있다.

→ 참.

→ Zola 질문! 아래 선지부터 먼저 확인하자!

- [21-6-15] ≒. D: 자율적 행위 능력과 무관하게 도덕적 지위는 부여되어야 한다.

이 선지가 문제의 선지와 무슨 상관이나고? 그러면 선지를 수정해 볼게.

- [수정 선지] 인간만이 자율적 존재이다.

수정 선지에 칸트는 O? X? 답은 OOOOO이다. 그러면 묻겠다. '자율'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분이 보는 선지가 바로 자율의 의미를 풀어쓴 것이다. 인간만이 스스로 도덕 원리를 세우고, 그것에 따라 행위할 수 있다. 문제 없지? 아래 원문 확인 해라!

- [칸트] 자연의 사물은 모두 자연의 법칙에 따라 작용한다. 오로지 이성적 존재만이 원리에 따라 행위를 하는 능력이나 의지가 있다.

㉡보편적 도덕 법칙만이 명령의 형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참. 정언명령과 가언명령, 법칙과 준칙만 알면 쉽게 풀린다. 도덕 법칙은 정언 명령의 형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런데 공리주의와 같은 것들은 보편적 도덕 법칙은 되지 못해도 준칙은 될 수 있는데, 보편화 가능하지 않은 준칙은 가언 명령의 형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칸트] 정언명령(定言命命)은 조건이 없는 명령이다. 가언(假言)명령, 즉 조건적 명령이 '네가 행복을 얻으려면 이렇게 행위하여라.'하는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으로서 행위를 명령하는 것인데 반하여, 단적으로 '무엇 무엇을 하여라.'라고 하는 누구에게나 무조건 들어맞는 명령을 이른다.

→ 아래 기출 문장 표현을 살짝 바꾸었을 뿐이다. 참고로 아래 기출 선지 오답률이 30%가 넘어간다. 험~~

- [윤사, 22-수능-16] ① 보편적 도덕 법칙만이 명령의 형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XXX

㉢행위가 도덕 법칙에 들어맞으려면 그 행위는 도덕적이어야 한다.

→ 거짓. 윤사 23-9-13 중에서 가장 오답률이 높은 선지이다. 그런데 이 선지는 국어로 간단히(?) 해결된다. 다시 말해 이 선지는 제시문 드럽게 안 보고 낯선 선지 보면 자기 머리 속에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바나나들을 저격하기 위해 만든 평가원의 선물(?)이라고 보면 된다. 바나나들은 이번 기회를 토대로 낯선 선지를 봤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할지를 잘 알아두길 바란다. 하나 더. 바나나 제거 특강에서 했던 얘기들을 기억하길 바란다.

→ 제시문을 보고 풀겠다.

제시문	도덕과 무관한 근거는 때로는 법칙에 들어맞는 행위들을 불러일으키지만, 더 자주 법칙에 위배되는 행위들을 불러 일으키기 때문이다.	☞ Zola 독해 제시문에 따르면 '도덕과 무관한 근거'도 '법칙에 들어맞는 행위'가 가능하다고 본다. 즉, '도덕적이지 않은 행위(도덕과 무관한 근거)'도 '도덕 법칙에 들어맞을 수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선지는 틀렸다.
선지	행위가 도덕 법칙에 들어맞으려면 그 행위는 도덕적이어야 한다.	

→ 지식으로 풀이를 하자면 선지의 도덕 법칙을 '의무'로 바꾸면 쉽게 풀린다. '의무에 맞는' 행위도 도덕적이지 않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도덕적이기 위해서는 '의무이기 때문에' 행위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 설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무에 맞는 행위'와 '의무이기 때문에 한 행위'를 구분할 수 있는 지식은 있어야 한다. 이 지식이 없다면 칸트 공부 다시 하길 바란다. 아래 기출 제시문 참고하고, 자료 교재도 참고하길 바란다. 자료 교재 내용은 생략하겠음.

- [20-9-2] 의무에 맞는 것이기는 하지만 의무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행위는 도덕적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 행위는 그 자체로 선한 의지에서 비롯된 경우에만 도덕적 가치를 지닐 수 있다.

㉣이성적 존재는 항상 자율적으로 선택한다.

→ 거짓. '자율'의 의미는 알지만 문장의 의미 해석을 멋대로 하는 바나나를 저격하기 위한 선지이다. 아래 두 문장은 동일한 의미의 문장인가?

[문장 1] 인간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문장 2] 인간은 항상 자율적으로 선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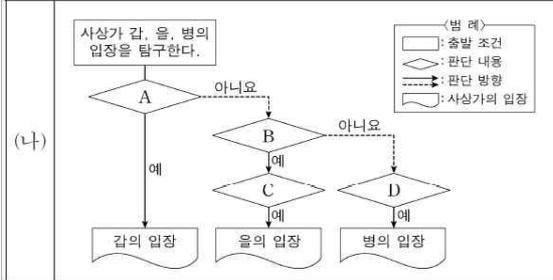
→ 두 문장의 의미는 다르다. 아래 해설이 도움될 것이다.

- [셸, 정의란 무엇인가?] 칸트는 우리가 늘 이성적으로 행동하며 자율적으로 선택한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더러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그는 단지 우리가 이성적으로 자유롭게 행동할 능력이 있으며, 이는 모든 인간의 공통점이라고 말할 뿐이다.

→ 이런 문제는 사실학하다고, 지엽적이라고 생각한다면 남은 바나나일 가능성이 높다. 아래 선지는 오답률 60%가 넘어가는 역대급 바나나 선지였다. 참고로 바나나 제거 특강에서도 다루었다.

- [19-6-14]

갑: 정의는 자신이 선택하는 바에 따라 소유권이 행사되는 것이다. 취득과 이전에서의 정의의 원칙을 따라 소유물을 취득한 자는 그것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
 을: 정의의 원칙은 원초적 상황에서 함의로 도출된다.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시민들에게 공통된 정의감이 존재하며 시민적 유대와 체제의 안정성이 보장된다.
 병: 정의는 동등한 사람에게 동등한 몫을 분배하는 것이다. 분배에서의 옳음은 일종의 비례인데 그것은 비율과 비율의 균등성을 의미한다.



- <보 기>
- ㄱ. A: 재화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만 이전되는가?
 - ㄴ. B: 정의로운 사회의 시민은 타인의 처지와 이익에 무관심한가?
 - ㄷ. C: 공정한 기회균등 원칙은 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하는가?
 - ㄹ. D: 분배와 교환의 정의는 모두 비례의 동등함을 따라야 하는가?

⇒ 님들은 ㄱ 선지를 어떻게 풀었남? '현실'에서는 '자유로운' 선택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유'로 선택도 존재'할 수 있다'라고 풀지 않나? 그게 '당연한' 거지 않남? 그래서 ㄱ에 대해서는 모두 'No'라고 말하지 않겠남? 굳이 이걸 배워서 알 수 있는 것인가? **이건 단지 fact를 확인하는 것이지 어떤 사상가의 입장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다.**

㉔의무로부터 비롯된 모든 행위는 의무에 맞는 행위이다.

- 참. 의무'에 맞는' 행위와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 간의 관계를 알면 바로 풀리는 선지이다. 의무 즉 선의지로부터 비롯된 행위만이 도덕적 행위이다. 도덕적 행위인데 의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 윤사 기출 선지인데, 생윤러도 준비해 둘 필요는 있을 듯하여 윤사 기출을 가지고 왔다. 앞에서 다룬 윤사 22-수능-16 문제이다.

[출시 생활과 윤리] Zola 영역

15

6 답 ④ 가, 나, 르

☞ Zola Guide 수준은 수능형 준킬러~킬러 정도의 수준이며, 선지 조합만 수정하면 100% 수능형이라 볼 수 있을 것임. 난이도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선지 조합만 비정형적으로 구성하였음. 참고로 이런 선지 조합은 수능 과탐에서는 사용하고 있음. 수능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니 너무 징징 거리지 말 것.

같은 롤스, 음은 싱어이다. 제시문의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

제시문	사상가 판단
갑: 한 나라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그 나라의 정치문화이지, 그 나라의 자원 수준이 아니다. 따라서 해외 원조에서 자원배분배 정책을 논할 필요는 없다.	정치문화적 요소 중시. 자원배분배에 관심없음 → 롤스로 판단할 수 있음(님들은 그 정도 기본 지식은 갖고 있어야 함)
을: 절대 빈곤국에 사는 사람들의 수를 줄이는 것은 분명 상대적인 빈곤을 줄이는 것보다 더 효용성이 크고 절박한 일이다.	효용성 중시 → 공리주의(싱어)로 판단 가능함.

롤스 ㉠원조 대상국 정부의 인권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자국의 기아가 방치된다

→ 참. 우선 기아는 배고픔을 의미하는데 단순한 배고픔보다는 심각한 배고픔(절대 빈곤)의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자.
→ 그러면 이 선지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접근할 수 있다. (1) 기출 제시문이나 선지 학습이 제대로 된 경우에는 바로 확인 가능함.

● [19-수능-17]

17.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인권에 대한 강조는 무능한 정치체제나 국민의 복지에 무감각한 통치자들의 행동을 바꾸도록 작용할 수 있으며 기근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로 바뀌도록 돕는 데 있다.

● [23-6-15] ㄷ. 롤스: 원조 대상 국가에게 인권을 강조하는 것은 원조의 목적 실현을 저해하는가? 롤스 XXXX

→ (2) 아래 두 지식을 활용하면 이 선지는 OX 판단이 가능해진다.

지식 1	절대 빈곤을 위한 원조를 해야 한다. OOO
지식 2	인권을 확립하는 것이 원조의 목적이다. OOO
↓↓↓↓↓↓↓↓↓↓↓↓↓↓	
우리 뇌피셜 (지식 1+2)	인권 확립이 절대 빈곤 해결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그렇다면 인권에 대한 관심 부족이 뭔가 문제가 되겠군!!!

그리고 우리 뇌피셜은 틀리지 않았다!! 롤스도 동의함.

싱어 ㉡정부를 압박하여 해외 원조가 효과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참. 싱어는 원조 주체가 정부가 될 수 없다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 저격하려고 출제한 선지임. 도대체 누구야?? 아래 제시문 보라!

[싱어, '실천 윤리학']

정부를 압박하여 세계의 빈곤한 이들에 대한 원조를 늘리고 그러한 원조가 가능하면 효과적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그 책무를 다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의 책무에 따라 행위할 수 있고, 해야 한다. 원조 단체에 기부함으로써 우리 자신에게도 덕적으로 마찬가지로 중요한 어떤 것을 희생하지 않고서도 아주 나쁜 일들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중지시킬 수 있는 한, 그러한 단체에 기부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다.

→ 현장에서 님들은 '효과적(공리성)'이면 정부가 해도 되겠군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됨!

싱어와 달리 롤스 ㉢원조받는 나라들의 정부가 교육을 개선하도록 고무하는 것이 원조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 거짓. 롤스는 제도 O, 싱어는 제도 X라고 정리하는 분들 저격용임. 그리고 선지 바나나 저격용이기도 함. 우선 선지를 다시 읽어보라. 그러면 확인해 보자.

● 확인 1. 교육 개선이 싱어식 원조 목적(공리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나?

● 확인 2. 교육 개선이 롤스식 원조 목적(인권 향상, 자유와 평등 보장)에 기여할 수 있나?

확인 1과 2가 선지에서 묻는 것이다. 님들의 생각은? 답변은 뻔하지 않을까?

→ 개별 사상가들의 지식으로 접근하면 아래와 같다.

→ 롤스 지식은 아래에서 확인됨. 그리고 좀 더 쉽게 하자면 인권을 중시하는 것이 롤스이므로 교육이 인권 향상에 도움될 것이라는 정도로만 추론해도 충분함.

[롤스, '만민법']

인권의 존중은 ... 여성을 위한 평등한 정의의 요소들을 확립하는 것이다. ... 여성에게 투표권, 참정권, 교육을 받고 활용한 권리, 부와 재산을 소유하고 관리할 권리를 부여했다. ... 기본적 정의의 요소들은 건전한 사회정책의 본질적 요소로 증명되었다.

→ 싱어 지식 확인.

[싱어, '실천 윤리학']

우리는 빈곤한 나라들을 도와서 그 나라의 가장 빈곤한 사람들이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러한 나라들이 정부를 고무하여 토지개혁법을 제정하고, 교육을 개선하고, 여성들을 교육하여 단순히 아이 낳는 역할에 대한 대안을 제공할 수 있다.

→ 하나 더. 싱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싱어, '실천 윤리학']

나는 절대빈곤과 그에 따른 배고픔, 열악한 영양상태, 주거의 부족, 문맹, 질병, 높은 유아 사망률, 낮은 평균수명 등을 나쁜 것이라고 가정한다

다. 여기서 '문맹'이라는 단어가 확인된다. 그러면 당연히 문맹을 제거하기 위해 '교육' 필요할 것이다.

롤스와 싱어 모두 ㉠원조 대상국의 정치 상황이 원조 대상물 결정짓는 요소가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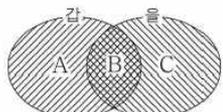
- 참. 교육청 선지인데 의외로 많이 틀려서 Zola가 의외로 생각했음. 역시 바나나들은 어디에든 있음.
- 일단 롤스는 쉬울 듯. 원조 대상국이 정치 문화적인 요소, 사회의 기본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애들이므로. 게다가 무법 국가를 알면 정치 상황(무법적인지 아닌지)에 따라 원조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한다고 생각할 수 있음. 그러면 롤스는 당연히 O가 될 듯함.
- 그 다음 싱어임. (롤스도 마찬가지로인데) 싱어는 원조 효과를 따지는 애임. 그렇다면 원조 대상국이 원조 효과가 잘 나타나는 애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지 않을까??? 아래 제시문 확인 바람.

[싱어, '실천 윤리학']

우리는 절대 빈곤을 감소시킬 책무를 갖는다. 그러나 결국에 가서 극단적인 빈곤을 감소시킬 전망을 전혀 갖지 못하고, 심지어는 증가시킬 수도 있는 전망을 갖는 희생을 해야 할 책무를 가지는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정부가 우리의 원조를 헛되게 만들 정책을 집행하는 나라를 원조할 책무는 없다. 이는 이러한 나라의 빈곤한 시민들에게는 매우 고통할 것일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부의 정책에 대해 아무런 발언권도 가지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 우리의 자원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 곳에 우리의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을 도울 것이다. 덧붙이자면, 같은 원칙이, 여성이 교육받을 것을 허용하기를 거부하는 것과 같이, 원조를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다른 조치를 취하기를 거부하는 나라들에게도 적용될 수도 있다.

● [22-3교-13] 오답률(obs 기준) 83% 실화임???? 참고로 ㄴ 오답률은 60%임. ㅎㅎㅎ

13.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원조의 의무는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 얼마나 떨어져 있고 어떤 공동체에 속하느냐는 원조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다.</p> <p>을: 원조의 의무는 합당하게 정의로운 자유적 만민과 적정 수준의 만민이 불리한 여건에 의해 고통 받고 있는 사회에 대해 부담해야 할 의무이다.</p>
(나)	 <p style="text-align: center;"><범례></p> <p>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p>

- < 보기 >
- ㄱ. A: 빈곤에 처한 모든 사람들을 균등하게 원조해야 한다.
 - ㄴ. B: 원조할 때 원조 대상국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 ㄷ. B: 원조 주체는 원조 대상국에 강제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
 - ㄹ. C: 질서 정연한 사회는 지구적 분배 정의의 원칙에 따라 원조해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13. [출제의도] 원조에 대한 싱어와 롤스의 입장을 비교하여 이해한다.

(가)의 갑은 싱어이고, 을은 롤스이다. 싱어와 롤스는 원조를 할 때 원조 대상국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고, 강제력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보았다. [오답풀이] ㄷ. 롤스는 원조가 지구적 차원에서 분배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답 ③

[출시 생활과 윤리] Zola 영역

17

7 답 ④

☛ Zola Guide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대로 문제를 풀지 않고 자신의 익숙한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바나나 저격용임. 발문에서 '사상가'라고 하지 않고 '입장'이라고 명시하였음. 즉 (가)의 '입장'을 독해하고, (나)의 '입장'을 독해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 즉 (가)가 (나)에게 제기 할 반론을 '추론'하면 됨. (가)를 소로, (나)를 롤스(?) 이런 식으로 구도를 잡고 풀면 답 없음. 만약 소로-롤스로 구도를 잡고 풀었는데 답이 나왔으면 그건 님이 오개념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 참고로 지나간 ebs 문제를 바탕으로 응용한 문제임.

독해형임. 수능장 가면 꼭 끝까지 읽어!!

[독해 풀이법]

기준	(가)	정의>법. 따라서 악법은 정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용서가 안 됨. 즉 '정의'라는 법의 아닌 다른 기준(법의 테두리 밖)으로 법을 판단해야 함. 따라서 악법에 대한 저항(시민 불복종)은 정의가 기준이 되어야 함.
대상	(나)	정의를 아리까리함. (기준이라는 것이 명확하고 고정적이어야 하는데 정의는 그러하지 못하므로) 정의가 기준이 되기 힘들. 그래서 악법이든 뭐든 간에 일단 법이면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결해야 함.
적용·결론	선지	악법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결 안 됨. 악법에 대한 저항(시민 불복종)의 기준은 법의 테두리 내가 아니라 바깥(정의)임.

이 문제의 모델이 된 ebs 수완 문제를 첨부하니 함께 풀어보길 바란다.

[참고] 지나간 ebs 수완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법의 문제를 해결할 때 정의의 영역과 법의 영역이 구분되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 ② 시민 불복종은 법에 대한 혼란을 초래해 법적 안정성을 약화시킬까를 간과하고 있다
- ③ 악법의 무효화를 위해 시민 불복종과 같은 외부적 방법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 ④ 법이 아닌 여론에 호소해 시민 불복종의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정당성을 상실한 법에 대한 불복종 행위는 정의에 근거해야만 함을 간과하고 있다

09 부정의한 법의 시정과 시민 불복종의 관계 파악

문제분석 같은 악법의 문제는 외부의 정의감이나 도덕적 신념에 의존하지 말고 법의 체계 내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비해 올은 법에 대한 존중보다는 정의에 대한 존중을 궁극적으로 우선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따라서 ㉠에는 올의 입장에서 감의 입장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정답찾기 ⑤ 같은 합의된 정의관이 법의 기준이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지만, 올은 악법에 대한 저항이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가 정의에 있다고 보았다.

오답피하기 ① 정의와 도덕, 그리고 신념과 같은 가치 판단의 영역과 법이라는 실효적 영역이 구분되어야 한다고 본 것은 올이 아닌 감의 입장에 해당된다.

② 같은 악법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시민 불복종과 같은 방법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③ 부정의한 법의 시정을 위해 시민 불복종과 같은 방법이 필요함을 강조한 사람은 올이다.

④ 여론에 호소함으로써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주장은 감과 올의 대답 내용과는 무관하다.

답 ⑤



힘내자냥~~~~

여기까지 풀시도였습니다.
열공+즐공=대박!!!